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23화>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담인 일곱째 천사

4절: 화생으로 사명을 이긴 피

- 1) 제주도 훈련병 시절
- 2) 광주 상무대 훈련소에서
- 3) 젊음을 불태운 11년의 군장교 생활
- 4) 일동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5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담인 일곱째 천사

- 1) 두 천사의 생수체험
- 2) 이한 검의 안찰과 환들 위에 오사
- 3) 은혜 간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
- 4)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격이완

4) 일동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전호에 이어서) 어려서부터 희생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성품이 청년장교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일곱째 천사를 찾아와서 우리 포천 군민 전체가 합세하여 풀뭇물 거저서 떨어줄 테니 군복을 벗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마음에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버리니, 나중에는 마을 유지들이 사단장을 만나 건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는 사단장실에 까지 불러갔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곱째 천사가 근무하던 한국군 28사단이 서부전선 영국군 24사단과 교대를 하는 바람에 동두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방의 사단이 교대할 때 일곱째 천사가 통역을 맡았는데, 영어로 결재하는 일곱째 천사를 보고 '어떻게 발음이 정확하냐!' 고 하면서 영국군 장교들이 여간 좋아하질 않는 것입니다.

동두천 안흥리라는 곳에서 농축 기술학교를 세우고 양주군 남면에 상수중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밖에 광주와 대구에 상명중·고등학교와 전북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에 금마재단중·고등학교(현 익산중·고등학교) 등 일곱째 천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전방 비무장 근방에 발령을 내 임진강을 건너가 백학이라는 곳에 백학 장노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나와서 후방 임진강을 건너는 쪽으로 가서 파주군 적성면 마지라라고 하는 곳에 마지 감리교회를 세우고 후방으로 발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름도 없이 묵묵히 누구도 모르게 젊음을 불살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희생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칠 때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뒀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뒀만 높다 하더라" 하는 시조를 즐겨 말하였고, "W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는 격언도 가르치며, 불가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품고 목적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교파를 들고 "오늘은 몇 과 할 차례냐? 어제는 어디까지 했느냐?"는 식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니다. 백목 하나만 가지면 교과서, 참고서 필요 없이 영어, 수학, 국어, 국사, 물리, 화학, 지리 등 모든 과목을 거침없이 가르치므로 일곱째 천사의 별명이 '백과사전'이었던 것입니다.



재건 중·고등학교 개교식 기념사진(조희성님은 정교복 착용) 1962. 5. 6



교파를 초월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침

서, 참고서 필요 없이 영어, 수학, 국어, 국사, 물리, 화학, 지리 등 모든 과목을 거침없이 가르치므로 일곱째 천사의 별명이 '백과사전'이었던 것입니다. 현책조차 없어서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선생님들이 교과서도 펼쳐지 않고 머릿속에 달달 외워서 전 과목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를 신기하게 여겨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한번 수업듣고는 공부하겠다고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교수법은 간단명료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격언과 고사 등도 결들임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반드시 그날그날 배운 공부는 그날그날 암기하였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담인 일곱째 천사

영적 동정녀에 해당하신 박태선(朴泰善) 영모(靈母)님은 잃어버린 해와(Eve)와 아담(Adam)을 찾아 이긴자로 키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자 해와는 혼혈비 이긴자요, 남자 아담은 조희성 이긴자입니다.

계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일하시고 이례케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장의 원리에 따라 짝을 이루는 여호와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이요,

나팔도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이요, 인(印)을 때는 자도 일곱째 인이 마지막이라고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인을 때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주인공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곱 단계의 계보를 타고 6천 년 간을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7천 년 대에 와서 안식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비밀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아브라함이요, 둘째 천사가 이삭이요, 셋째 천사가 이스라엘(야곱)이요, 넷째 천사가 이스라엘의 장자 단(Dan; 한민족의 조상) 이후로 약 4천 년 동안 잠복했다가 기원후 20세기에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 그리고 일곱째 천사로 나오셨는데, 이 세 천사 중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삼위를 회복한 둘째 아담으로서 만민을 죽음에서 건지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1) 두 천사의 생수체험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흑석동에 거처를 정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흑석동 감리교회에 중·고등반 학생 지도 선생으로 있었습니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6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지를 뿌리며 나아갈 때, 흑석동은 집집마다 안 들어간 집이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종로를 비롯하여 신당동 동대문 평화시장 할 것 없이 훑으면서 남산공원으로 올라가 전도하다 계단으로 내려오니,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이 오륙 명의 교인과 함께 복을 치며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이 곧 다섯째 천사 박태선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는 31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불성신의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불성신을 만난 해부터 복을 둘러매고 남산 주변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살의 다섯째 천사가 남산 언덕에서 교회 신자들과 함께 복을 치며 전도하던 어느 날, 한강 남쪽 흑석동에서 강을 건너와 전도하는 감리교회 중·고등반 학생들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무리가 한데 어울려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복을 건네주는 법이 없었던 다섯째 천사가 60여 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나온 18세의 일곱째 천사에게 복을 맡기며 대신 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남대문교회 신자들은 "박 집사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복을 양보하지 않는데, 이 고등학생한테 주다니 정말 처음 있는 일이야!" 하며 저마다 신기하게 여기며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다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두 천사는 서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어릴 적부터 항상 몸이 뜨겁게 불이 입혔는데, 남산에서 다섯째 천사인 박 집사를 만난 다음부터는 목에서 배속까지 시원하게 생수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기 시작한 해는 1948년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째 되던 1950년도에 6.25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에 34세의 다섯째 천사는 비로소 생수를 마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박한수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 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인간 생명의 근본물질은 무엇인가

현대 과학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첨단과학 분야는 바로 생명과학(生命科學)이다. 과학자들은 오늘도 실험실 안에서 연구를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과연 인간 생명의 근본물질(根本物質)은 무엇인가? 인간의 몸속에는 신비한 그 무엇이 존재하기에 이렇게 사람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가?

인체의 세포(細胞)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고 새로운 세포를 탄생시켜 계속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세포가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되고 있듯이 신체의 모든 기관도 새롭게 탄생될 수는 없는 것인가?

현대의 첨단 과학에서도 이러한 의문에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렵고 먼데서만 찾아 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 우선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에서부터, 차근차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피를 썩게 하는 마음이 죽음의 원인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피가 변하면서 몸이 변한다.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요, 때려야 뭉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대로 지금 우리들의 피는 변하고 있다. 듣기는 쉽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새로운 학문을 선포하는 첫 마디인 것이다.

육심을 부리면 피가 더러워진다. 더러워진 피는 몸속에서 썩고, 썩은 피속에서 병균이 발생하므로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은 거센 죽음의 조류 앞에서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육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체하고, 근심 격정을 하면 얼굴에 기미가 끼는데, 이것이 다 육심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증거다. 성경에도 육심이 곧 죄요, 육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고 하였다(야고보서 1:15). 육심은 죄요, 죄는 피를 썩게 만든다. 피가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썩는다는 것이요, 생명이 썩는다는 것은 곧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육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피가 썩어서 죽는다는 것이다.

피는 힘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피'는 필수적인 것이다. 현대 의학의 첨단기술로도 다른 중요한 신체기관은 인공적으로 만들지만 피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피가 단순히 우리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9일째>



피가 맑아야 영생할 수 있다

몸 구성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정도의 물질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신(神)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서, 피의 작용에 의해 사람의 생각과 감정, 기분과 컨디션 등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피가 부족하면 빈혈(貧血)이 일어난다. 빈혈이 일어난 사람은 힘을 쓸 수 없다. 아무리 힘을 쓰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 몸에 힘을 공급해주는 것도 역시 피이기 때문이다. 또한 빈혈이 일어날 때 어지럽고 동시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피를 많이 흘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힘이 빠지면서 의식(意識)이 흐려진다. 이는 피가 힘의 원천인 동시에 생각하는

힘, 즉 생각을 작동시키는 원천이기도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피를 많이 흘리면 의식을 잃게 되며, 더 지나치게 피를 흘리면 사람은 죽는다. 피를 잘못 수혈(輸血)해도 죽는다. 집중의 피를 사람의 혈관에 주사하면 즉시 쇼크를 일으켜 죽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단적으로 피가 생명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사실상 생명의 모든 활동인 숨쉬기, 소화, 분비, 감각작용, 두뇌작용, 신경활동 등 모든 생명활동이 피에 의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인체 세포의 형성 자체가 피로써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다. 피는 고정된 물질이 아니며, 순간순간 살아서 변화를 일으

키고 있는 생명체이다. 화가 난 사람은 심장 박동이 빠르고 불규칙해지며 얼굴빛이 붉게 변한다. 겁에 질린 사람은 얼굴이 검게 변한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현상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인간의 감정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인간의 감정은 바로 피의 작용이다. 따라서 뜻속에는 그 사람의 감정적 기질이 들어 있다.

예로부터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된 관습이다. 결혼할 때에 미친 사람이나 간질병이 있는 집안, 살인자가 있는 집안과는 혼인을 피하였다. 그것은 유전정보를 담은 뜻속에 그 사람의 기질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피만 썩지 않는다면 불멸의 존재로

피를 썩게 하는 마음이 죄인(罪人)이 가지는 육심이라면, 반대로 피를 썩지 않는 마음은 의인(義人)의 마음이다.

의인의 마음은 피가 썩지 않으므로 늙을 수가 없는 마음이며, 죽을 수가 없는 마음이다. 따라서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자가 바로 의인이며, 죽지 않는 피가 흐르는 자라야 그가 바로 성인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성인군자는 피를 썩히는 마음을 바로잡아 정상적인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줌이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서 '메시아'라 하였으니, 6000년 동안을 학습하고 대하고 있었던 성경상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그가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지 않게 되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의인(義人)의 마음이 곧 불로초

의인의 마음은 항상 영생의 확신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이다. 영생의 확신이 되는 영생의 마음이 곧 생명과일이요 불로초(不老草)다.

영생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영생하는 법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에 먼저 영생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메시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메시아를 영접한 우리들은 영생이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루가 모여 이들이 되고 또 하루가 모여 삼일이 되듯이.. 이제그대로 어제라는 과거도 내일이라는 미래도 지금의 현재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진리!

영생은 매 순간 하나 되는 마음속에서 피는 꽃이기에 분열과 다름이 없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박태선 기자